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

이진숙*

1. 들어가는 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에 국한 할 경우 140여 한국어 강좌가 정식으로 중등 내지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채택되었고, 그 외에도 700여 지역사회의 주말학교들이 설립되었다(조, 2001). 미국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습언어 학습자(heritage language learner), 즉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계 학생들이 많다. 그러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한국어 등록 학생 수의 약 90%에 달하고 있다(킹, 1998).

언어학적으로 영어권 화자들한테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가 비슷하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교할 경우 한국어에 관심있는 학생들 중 비세습언어(non-herit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learner) 학습자들은 매우 드물다. 물론 그 차이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와 차이점은 우리 언어와 문화가 보다 넓은 층의 인사들로부터 받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음식 문화만 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본음식이나 중국음식은 외국인들로부터 매우 인기있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한국음식은 아직 그러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더 많은 관심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한국 기업체에서의 직업연수 또는 다양한 문화적 행사 같은 기회들을 통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외국어 교육의 최근 경향들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위주 및 문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개선된 교재들 그리고 한국어 능력 평가 기구들과 능력 제고 가이드라인과 같은 언어 실천 위주 교수용 자료들이 탄생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한국어 어휘와 문법 실습을 위한 웹사이트가 여러 곳에서 개설되어 있고, 재미 한국인 교사 연합회 및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회 같은 단체들도 생겼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해결책을 얻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예컨대 의사소통의 틀 속에서 문법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훈련은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나; 언어교육에서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습언어 학습자와 비세습언어 학습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과 협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을 전

제로 한 비교 문화 교육을 하는 금년도 회의의 주제에 맞추어 본 논문은 언어 교수법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언어교육 과정에 문화를 통합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언어 교육에 문화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결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외국어 교육과 문화

2.1 문화의 정의

크람쉬(1993)는 언어를 사회적 실천으로 볼 경우 문화는 언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문화와 언어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논거들(1994년에 아가가 말한 Linguaculture와 판티니 1995, 크람쉬 1993, 맥카디와 카터 1994)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 두 가지 양분법을 해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어 교육자들은 언어를 “문화적 사실들을 전수하기 위한 중립적 도관”으로 생각하고 개념화시키고 있다(크람쉬, 케인 & 머핀-르쥘 1995:5).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로서의 언어가 아닌 언어와 문화로 분리 가능한 실체로 개념화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문화란 언어와 섞여 짜여진 것이 아니라 말하기,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 기능 다음으로 개발해야 할 언어교육에서의 다섯 번째 기능쯤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다(크람쉬, 1993).

미국 정부에서 주요 외국어 교육협회에 의뢰하여 개발한 외국어 학습

기준에서는 문화를 “문화적 배경, 행동적 책략 그리고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소산품”이라고 정의 한다(국가 기준, 1996:43). 이 정의는 문화가 단지 사실과 인공 산물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계관과 언어 화자의 생활방식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경이란 의식, 태도, 가치 그리고 그 문화 그룹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개념들로 설명되고, 관습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가 기준, 1996:46). 그 두 가지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 관습이란 그 사회 특유의 세계관과 관계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 한 문화의 소산품들, 즉 “문학 작품, 도구들, 음식, 음악과 오락”등은 특정 사회의 배경을 반영하는 것들로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개인이 세상에 대한 전망을 피력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언어와 문화 학습의 상호 연관 관계는 마이클 브라이언(1997, 2003)에 의해 심도있게 탐구되었다. 그는 언어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회 특유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가치관과 의미들, 전통과 인공산물 등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브라이언은 “외국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을 새로운 의미 체계들과 그에 부합되는 기호들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능력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와 문화적 능력들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1997:12). 달리 말하면, 모국 문화와 대상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2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은 L1 그리고 L2의 언어사용과 생활방식에 대한 대조적인 대화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다른 방식에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재고하는 방향으로 인도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문화학습은 간문화적(intercultural)이라고 표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간문화적인 차원에서 언어와 문화적 작업이 무엇인가를 숙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과 행동 등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문화교육을 제외할 수 없으며 대상 문화에 대한 지식 및 그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유효한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이룰 때 필요한 이해심과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뜻하고 지속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을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이다.

2.2. 문화 교육에 따르는 위험과 함정들

문화는 변한다. 문화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변하는 주변의 문화와 핵심적인 전통 문화 간에 빛의 갈등의 전망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양 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 관습 그리고 산물들이 변하였고, 계속 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한국의 인기 가요는 힙-합, 랩, R&B의 서양음악을 대표하는 선율들을 도입 하고 있으며 김치보다 피자 와 햄버거가 인기있는 음식으로 젊은층에서는 뽑힌다. 아울러 사람들의 성향과 태도도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위계질서화된 우리 사회구조도 조금씩 수평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문화가 유동적임을 보여 주는 실례들이며 그 결과가 언어 사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법의 전략이 전통적인 문화현상과 현재 변화된 사항들의 방식을 도입하는 데 균형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족 또는 집에 대한 문화적 주제의 단원에서 먼저 전통적인 한국의 집의 구조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관습을 제시하면서 이런 관습이 한국 사람들의 행동, 사고방식 또는 언어사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에 대해서 배우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문화학습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집이나 가족에 대한 단순한 묘사를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지식을 통해 한국사람들의 정서, 행동, 그리고 언어를 더욱 더 뿌리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트리키스(1988)는 문화를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가 일상적인 특성과 고정된 영상들을 구분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화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반복되는 행위들을 찾아 그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많이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대체적으로 문화적인 경향들이 있지만, 다양한 관점들도 소개하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 경향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투적 정형을 없애는데 중요하다. 예컨대 한국을 방문하고 온 많은 학생들은 한국의 운전자들이 급하고 과격하다는 인상을 품고 온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거칠고 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상이 고정된 영상이 안 되도록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서울의 심한 교통체증 상황으로부터 생겨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부수적이거나 별스러운 흥미를 끄는 문화적 건본으로 너무 단순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Integrated Korean 제 10과의 신정 명절을 설명하는 “cultural note”에 보면 신정 휴일 때 한국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돈을 준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한 풍습을 가르칠 때 문맥적인 의미에서 분리시켜서 문화적 순서나 행동만 가르쳐서는, 그 풍습이 왜 한국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한다. 그런 깊은 의미의 맥락을 이해 못한다면, 학습자들한테는 그 풍습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로 전락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학습자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 대해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교사들은 문화적 양상들을 보다 중립적인 조명 하에 소개할 수 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은 선입견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문화교육의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제한된 강연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적 상황들을 관찰하고, 참여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관점들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교육의 불완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하위문화(subculture)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함으로써 한국문화 내에도 여러 전망과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언어 사용과 문화적 관습들이 다를 수 있다. 많은 세습 언어 학습자들의 경우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한국어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 학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표준어인 언어 지식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언어 사용을 인정해 주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언어 사용도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고 표준어와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문화적 양상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이 있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며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적절한 것인지 알아야 하며, 언어학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의 기준에 적합한 한국문화의 양상들을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교육의 목표

언어교육 안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들은: (1) 문화적인 관습과 소산품들을 통해서 언어교육을 더욱 더 재미있고 진정한 맥락 속에서 실현하는 것; (2)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며 대상 언어 화자들과 공통된 문화적 문맥의 이해를 계발하는 것 그리고 (3) 간문화적인 능력을 갖춘 언어 학습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법 위주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적절하고 연관성 있는 문화적 양상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교육을 탈맥락화된 문화적인 사실들과 문법적인 규칙들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주제들을 (예를 들어, 미국학생들의 경우 Korean-American들의 역사 및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한다.) 통해서 언어의 다양한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계발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문화교육은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사용에 필요한 문화적인 지식과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이 목표는 언어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다는 데 원칙을 두며 문화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언어 학습자들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고, 그

사회에서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된 기능을 보여주며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로는 교실 안에서만 실행되는 외국어 교육이 언어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결국 학습자들이 거의 원어민과 같은 숙달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와 언어에 몰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민족지학자의 의미로 대상 언어 사회에서 참여자 및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계략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들과 물증들을 밝혀내고 귀납적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는 교육적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풍부한 접근 방법은 학습자들로부터 민족지학자들의 기본적인 자질을 계발시켜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넓은 세계가 열려 있으며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상황들을 접하게 하고 교사들의 지도와 함께 스스로 대상 문화와 언어를 관찰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대상문화를 비교하며 간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심을 둔다.

4. 교육적 방안의 실패들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활동들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

를 맺고 있고, 언어학습이야 말로 진정하고 의미있는 맥락에서 가장 생산적인 데 바탕을 둔다. 프로젝트 학습에 의한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문화적 배경과 관습 그리고 소산품들이 의사 소통적 언어사용을 통하여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활동들이다. 그러므로, 문화교육에서 핵심되는 교수법의 지침으로는 문화적 주제 단위들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형성하는 것과 문화적 주제를 제시할 때 다양한 언어 숙련 활동을 통합시키며 언제나 가능한 곳에서 학습자의 본 문화와 목표 문화를 대조하는 과정접근 학습에 있다.

4.1. 존대법에 대한 활동

영어화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매혹적인 양상이면서 가장 어려운 양상으로는 존대법을 들 수 있다. 영어에는 한국어처럼 뚜렷하게 담화층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영어화자들한테는 존대법이 매우 낯설고 어렵다. 학습자들은 담화층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성별, 권위, 사회적 친소관계 그리고 맥락의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적합한 존대급의 선택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누구와 함께,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형식이 사용되는가에 대해 강의하거나 또는 학생에게 반복적인 연습 문제를 통하여 존대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들의 관리 감독하에 한국사회에서는 존대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고, 관찰하고, 가정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효과적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며 문화교육을 통합시키는 데 목표를 둔 방안으로서 대상 문화에서 언어 행위(speech act)의 분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을 받아들이고 초청을 승락하거나 거부하고, 사과

하고 감사하고 인사드리는 방식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겸손함의 표시로 손님들께 음식상 앞에서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표현을 한다고 가르칠 때 학습자들은 그 문화적인 문맥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며 영어의 화용론적인 언어사용 규칙을 적용하며 한국어의 언어문화가 위선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언어 행위들을 비교분석하지 않고서는 학습자들이 사회문화의 적합한 목표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각 문화에서 인터넷, 드라마, 상업광고의 사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언어 행위에 대해 언어학적, 상황적, 행동적, 준언어학적 수행 방식들을 분석할 수 있다. 수업 중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언어 행위를 집중하며 학생들은 어떻게 의사소통 전략과 담화층위가 결정되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가설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문화적 문맥을 확정하고 그 상황 속에 있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성별, 권위 및 사회적 친소 관계를 분석한 다음 그들이 사용한 담화층위, 표현,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같은 상황 속에서 상황변수들을 다르게 조정했을 때 어떻게 담화층위가 바뀔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학습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계급사회와 유교적 사고로부터 나온 한국사회의 계층의식을 이해하며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에서 근본적으로 자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표준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조직 내에서 협조와 화목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주의 문화의 소유자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계층조직을 반영하는 다양한 대우 표현들이 발전되었고 일상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늘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대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차차 실제 언어사용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또 다른 유용한 활동은 담화 완결과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을 묘사하는 각본을, 즉 “잘 모르는 학교 선배한테 교과서를 한 학기 동안 빌렸으면 한다. 그 선배한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답변을 추구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관심있는 대본들을 합작하여 대본의 주인공들의 성별, 권위, 나이, 친밀도, 자기투자의 정도(화자가 언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그리고 언어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을 결정해 담화 완결과제를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대본을 지역사회의 한국어 원어민들에게 주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동년배 원어민들에게 보내어 폭넓은 의사소통 책략과 대상 문화에서 적절한 응답들에 접근할 수 있다. 수집한 응답들을 교실로 가져와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그 응답들을 비교분석하며 문화적 언어행위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로부터 감시 감독되는 역할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대본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몸짓과 어조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보다 자세한 교육활동의 기술을 위해서는 이와 맥체스니 2000을 참조).

그런 활동의 또 다른 변화는 원어민 영어화자들에게 같은 대본을 완수하도록 함으로써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에서 같은 언어 행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대조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대상 문화에서 언어 행위들의 수행뿐만 아니라 모국 문화에서 언어 행위의 특징들을 주목하도록 훈련하며 비교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 자각이 향상될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사용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인정하며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상대방 문화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적 태도를 찾을 수 있다.

언어학습 수준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보충시키기 위해 활동들을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개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 행위에 대한 교육을 민족지학자들처럼 접근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읽기, 듣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며 학생들이 목표 문화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세계관을 건설하는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4.2. 문화적 소산품들을 가르치는 방안

교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양상은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쉽사리 보여주고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지리, 문학 작품, 음식, 음악, 예술 등 같은 문화적 소산품들이다. 학생들은 자기 모국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소산품들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심 부분을 토대로 문화를 가르칠 때 별도의 독서나 주해의 형식으로 부수적이거나 일화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설명이나 학습 활동은 피해야 한다. 만약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상징적 기호들에 대한 설명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언어습득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다양한 문화적 주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를 실천하고 배우는 기초가 된다면 언어습득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맞추어 문화적 소산품들을 설정하고 문화적인 주제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문화적 주제의 단원들을 바탕으로 언어를 배우고 진정한 맥락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제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한 어휘와 표현과 문법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학생들이 문화교육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어떤 한국어 강좌이든지 한복이라는 문화적 주제는 한번쯤은 배울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의상에서부터 현대 의상의 유행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교과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읽기, 듣기, 쓰기 및 말하기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상황에서 언어실천 기회들을 부여하면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탐색하는 교과과정을 개발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의상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게 하며, 즉 한국의 현대복장의 연구, 한국 사람들의 유행에 관한 태도의 연구, 전통적인 결혼식 의복에 관한 연구, 또는 미국과 한국의 유행을 비교하는 연구 등을 설정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 주제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한국의 의상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에 따르는 한국 사람들에 의상의 대한 태도와 가치관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문화와 대조를 해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토론함으로 목표 언어를 의미있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 문화의 소산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3. 의사 불통 사례들을 분석하는 활동

영어화자들에게 어려운 또 다른 부분은 한국어 담화에 담긴 간접성과 애매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의 의사소통 체제가 문화적 맥락에 매우 의존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기반을 크게 강조하고, 맥락적인 단서를 통하여 청자가 많은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낮은 문맥적 의사소통 체제를 가진 미국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명시적인 약호로 확정됨

으로써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화자들이 이해하는 언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를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동화물(cultural assimilator)인 의사소통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술이다. 문화적 동화물은 하나의 삽화로 구성되었고 어떤 형태의 갈등이나 의사 불통을 그 삽화 속에서 발전시킨다. 각 삽화에는 세 가지 기본 부분이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의사 불통의 삽화를 학생들이 대화나 이야기 형식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에게는 갈등이나 오해의 근원에 대해 네 가지 가능한 설명을 객관식 형식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것은 그들이 사건을 돌아보고 어째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지침이 된다(오마지오-하드리, 2001).

각각의 삽화가 소개된 후 학생들은 교사들이 목표 언어로 이끄는 교실 토론을 통하여 의사 불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 본다. 학생들이 문화 교차적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흔히 일어나는 모호성을 체험하도록 문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해답은 최종적으로 소개된다.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닌 민족중심주의적 성향으로 그 분석을 접근하게 되며 그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쉽사리 서두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종류의 활동은 말하기, 듣기, 쓰기 및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문화적 전망과 관습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탐색하게 한다.

또한 어휘와 개념들의 문화적 부가 의미의 차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은 의미론적 지도제작(semantic mapping)이다. 그것은 어휘의 개발과 문화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연습이 될 수 있다. 우선 흥미를 유발

시킨 외국어 어휘나 개념을 선택한다. 그 다음 교실의 학생들에게 그와 연관되는 단어들을 되도록 많이 생각하라고 한다. 각 학생들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아마 다양한 표현이 나올 것이다. 학생들은 어휘들을 묶어 어떠한 범주 속에 넣고 그 범주들의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휘들과 그들의 관계를 의미론적인 지도를 그려서 서로 보여주며 토론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만든 지도들을 비교하고 그 지도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의미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습이 될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한국어 어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 작업은 영어로 실천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체험의 차이들을 인식하므로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의미론적 지도제작 활동은 어떠한 주제, 가치, 교육, 추상적 개념, 문화행사 또는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 행동과 연관된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5. 미래의 방향

본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문화와 언어의 통합을 요청하며,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민족지학자처럼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포함시킨 교육이라고 제시해 보았다. 또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 능력을 구축하는 활동 속에 문화가 통합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더 효과적인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아직까지 우리 분야는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방안들

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바이다. 교육 연구자들, 교과 과정 또는 교재 개발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언어 학습 연구의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단계별로 소개해야 하는 문화적 내용들을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언어능력 개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고 적합한지를 연구 조사해야 하고 그런 내용을 바람직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훈련이 부족하다. 교사들이 문화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전략들을 적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훈련 없이는 문화교육을 사실 전달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문화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친숙함에 차이로 인해 세습언어 학습자와 비세습언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매우 다를 수 있다. 보다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언어교육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은 무엇인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들의 태도와 동기가 무엇인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언어발달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중 사회문화적 능력이 문화적 사실들만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핵심

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사용의 필요한 문화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화를 배우는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훈련 없이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을 시킬 경우 우리는 아마도 원어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적 공명이 대부분 결여된 빈곤한 의사소통에만 학습자들을 접근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언어문화교육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단순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임무 자체가 자극적인 것이므로 학생의 관심을 높여주고 학습에 더 흥미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방법으로 비교 문화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정 의미있게 언어를 구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 주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화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참고 문헌

- 조영미. 2001. 미국에서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한국어 세계화 제2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 Agar, M. 1994.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NY: William Morrow.
- Alfred, G. Byram, M. & Fleming, M. 2003. *Intercultural experience and educ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ho, Y., Lee, H., Sohn, H. Sohn, S. Schulz, C. 2000. *Integrated Korean*. KLEAR University of Hawaii-Press.
- Fantini, A. 1995. Introduction: Language, culture, and world view: Exploring the nex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9, 143-153.
- King, R. 1998.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vs.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North America and the former USSR. *Acta Koreana*. Vol. 1
- Kram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msch, C., Cain, A., & Murphy-Lejeune, E. 1996. Why should language teachers teach culture?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9 (1), 99-107.
- Lee, J.S. and McChesney, B. 2000. Discourse Completion Tasks: A teaching tool for developing sociocultural competence. Oxford University Pres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Vol.54/2. pp.161-168.
- McCarthy, M. & Carter, R. 1994. *Language as discourse: Perspectives for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Patrikis, P. 1988. Language and culture at the crossroads. In In A.J. Singerman (ed.) *Toward a new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Reports of the Northeast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Middlebury, VT: Northeast Conference. pp.13-24.

- Omaggio Hadley, A.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Heinle & Heinle.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1996.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